

시·도 추경 앞당기고 예산 조기집행 경기 활성화 총력

광주시 추경 2000억 4월 편성
광주형일자리 590억 본예산에
전남도 5000억 일자리 등 투입
본예산 58% 13조 상반기 집행

광주시와 전남도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안도 예년과 달리 1개월 앞당겨 편성한다.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 사회간접자본 시설(SOC) 등에 예산이 조기 투입되면서 지역민들의 체감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

◇광주시=7일 광주시는 “통상 매년 5월 실시했던 추경 편성을 4월로 한 달 가량 앞당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추경 예산안은 2000억원 규모로 전향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연구개발(R&D), 복지비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90억원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광주시는 올해 재정을 조기 투입하고 확대 편성에 지역경제가 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일부터 3월 중순까지 실무 회의를 거쳐 최종 추경 예산안 규모를 확정할 뒤 4월9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남도=전남도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본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본 예산에 추가로 포함될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년에 비해 1개월 가량 빠른 4월 중에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첫 추경 예산은 5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과 관련한 보조금 예산이 집중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또 올해 본 예산 조기 집행에도 나선다. 신속 집행 추진단까지 구성해 이달 27일까지 점검 회의를 갖는 등 예산이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 시설(SOC)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올해 24조 3300억원 중 13조 7000억원을 상반기 집행 대상으로 정했다. 이 중 58.5%인 8조 3000억원(시·군 포함)을 상반기 집행 목표로 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복지 관련 예산이 1조 3690억원 ▲농축산식품 예산 5590억원 ▲지방도 등 SOC사업 예산 3657억원 ▲저출산 극복 등 여성가족 정책 예산 3492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관련과 SOC 사업 예산 등이 중점적으로 집중 투입된다. 전남도는 올해 1159억원을 투입해 4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3만 3000개에 비해 7000개가 늘어난 규모다. 겨울철에는 실내활동에 한해 조기에 실시하고, 실외 활동도 이달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월 30시간,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신설돼 월 60-66시간, 10-11개월 운영된다. 사회서비스형은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시설 등 아동 및 장애인시설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시설지원 등이다.

SOC 사업도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 왼쪽부터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문 대통령, 김범석 쿠팡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아랫줄 왼쪽부터 정태호 일자리 수석, 홍중학 중소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소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신속한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다. 강상구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정부의 예산 신속 집행 정책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문 대통령 “혁신 창업 기업, 대기업 성장 적극 지원”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혁신 창업이 활발해져야 한다”며 “그렇게 창업된 기업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장의 주된 동력을 혁신에서 찾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아에서의 혁신과 함께, 혁신 창업이 특히 중요하며 창업의 생태계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신설법인 수가 10만개를 돌파했는데, 이는 사상 최대 수치다. 벤처투자액도 3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는 벤처기업의 수도 600개 이상으로 늘었다”며 “중소기업 수출액이나 수출에 참여한 중소기업 수도 사상 최고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유니콘 기업의 수도 현재 6개인데, (이 밖에도) 5개 기업 정도는 유니콘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잠재적 유니콘 기업’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그 성과가 지표상으로는 나타나

고 있다. 그래도 기업을 창업해 성장시켜 보고, 창업가들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을 생생하게 들려주면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등 1세대 벤처기업인들과 김범석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권오성 L&P코스메틱 회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 한국형 유니콘 기업 경영인들이 참석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형일자리 반대는 청년 외면하는 기득권 이기주의”

이용섭 광주시장, 민주노총-현대·기아차 노조 작심 비판

“일부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부분 오해 내지 않겠다. 특히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외면하는 기득권자의 이기주의이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설 연휴를 끝내고 7일 첫 직인 정례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협약체결식의 분위기를 타고 추가 투자자 모집, 합작법인 설립 등을 올 상반기 내에 끝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현재 있는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일자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침체된 제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차 생산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경차 생산이 포화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핵심은 가격과 품질”이라며 “합작법인이 2021년 생산에 들어가면 차량은 세계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있고, 최근 인기있는 경차 SUV이며 임금이 적정

화대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새로운 수요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시작은 경차 SUV로 출발하지만 앞으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형 친환경차 등 파생 모델 생산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현대·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이 열린 지난 1월 3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사업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또 이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자동차에서 다른 분야로 확산시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들어야 하며 이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올 광주·전남 경제성장률 0.1%~0.6%p 상승 그칠 듯

새해 광주·전남의 경제성장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전망이 나왔다. 이 지역의 2019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보다는 0.1%p~0.6%p 정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전남연구원 김봉진 책임연구원은 7일 ‘광전 리더스 Info’에 발표한 ‘광주·전남 지역경제동향과 2019년 전망’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광주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1.6%~2.2% 수준으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5%, 최근 3년간은 연평균 1.4% 성장률을 그쳤고, 2017년 1.6% 성장률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전남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1%~2.7% 수준으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

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최근 10년간은 연평균 2.3%, 최근 3년간은 연평균 2.9%였고, 2017년 2.1%로 조사됐다.

김 연구원은 “신흥국으로의 수출 다변화, 부품 수출 시장 확대 등 지역 부품 중소기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이 약화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지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모던건설)